대학별 환산점수 꼼꼼히 따져야

어제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

자신의 취득점수 파악 뒤 지원

광주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 예년과 달리 대학별 배치기준표를 작성,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각 대학의 지원 예상 가능점수를 가늠한 것으로, 등급제 시행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이 예상되자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대학 지원 참고자료집'(이하 자료집)의 대학별 수능 환산점수는 지난해 입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올해의 경우와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단지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이다. 시교육청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영역별 평균등급에 따른 취득 점수 기준표를 명시해 놓고 있는 만큼 자신의 등급에 맞는 취득점수를 파악한 뒤 희망대학 선택 등 지원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하다. 대학에 따라 등급에 부여하는 기본점수가 다르고, 등급간 점수 차도 천차만별이어서 꼼꼼하게 모집요강을 챙겨야 한다.

◇**전남대**=수능 점수만으로 뽑는 가군에서는 수능 환산점수 만점이 100점이다. 1등급은 100점이며, 등급별 점수 차는 10점으로 9등급에게는 20점이 부여된다. 학생부·수능·면접 점수가 각각 50%, 40%, 10% 반영되는 나군의 수능 환산점수 만점은 400점이다. 등급별 부여점수는 가군과 동일하다.

◇**조선대**=가·나·다군 모두 반영 점수가 학생부 100점, 수능 500점이다. 인문계열의 경우 언어·외국어영역이 각각 150%, 수리와 탐구영역은 100%씩 반영돼 총점 500점이 된다. 자연계열은 수리·외국어영역이 150%이고 나머지가 100%다. 등급별 배점은 전남대와 같이 1~9등급이 100~20점으로 분배된다.

◇**광주대**=학생부 60%, 수능 40%를 반영하는 광주대 가군은 총점은 400점이며 수능 만점은 160점이다. 수능의 경우 9등급인 수험생에게 기본 점수 32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급별 취득점수 차가 16점이다. 8등급은 48점, 7등급은 64점, 6등급은 80점, 5등급은 96점, 4등급은 112점, 3등급은 128점, 2등급은 144점, 1등급은 만점인 160점 등이다. 유아교육과의 경우 자료집 상의 지원가능 환산 점수가 102.7점이므로 최소 4등급이 돼야 안정권이라는 얘기다.

◇**호남대**=수능이 50% 반영되는 가·다군 일반학생의 수능 환산점수 만점은 250점이다. 1등급이 250점이고, 등급별 점수 차가 10점으로 9등급에는 기본 점수 170점이 부여된다.

◇**동신대**=학생부와 수능 점수 반영비율이 가군 20%·80%, 나군 40%·60%, 다군 60%·40%로 제각각이다. 등급별 점수는 1등급 100점부터 5점씩 내려가 9등급은 기본 점수 60점을 받게 된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수능 등급별 배점

학교 \ 등급	1	2	3	4	5	6	7	8	9
전남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조선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광주대(가군)	160	144	128	112	96	80	64	48	32
(나군)	240	216	192	168	144	120	96	72	48
호남대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동신대	100	95	90	85	80	75	70	65	60

조선대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문연다

완도 신지에 100억 투입

해양생물산업 육성 박차

조선대학교가 오는 24일 오후 3시 완도군 신지면에서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센터장 윤성명·이하 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센터는 해양수산부 50억원, 전라남도 17억5천만원, 완도군 7억5천만원, 조선대학교 자체예산 25억원 등 총 100억원이 투입돼 2004년부터 3년간의 공사를 마쳤다.

대지면적 2만6천129㎡, 연면적 5천207.22㎡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센터에는 대강당(282석), 대강의실, 세미나실, 교수연구실, 실험실습실 및 연구원 숙소(91인) 등이 포함돼 있다.

센터에서는 해양생물 유래 신기능성 식품의 개발 및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해양 천연물 신의약 개발, 해양 신소재 대량생산, 수산양식 및 해양환경 생태보전 등 다양한 해양생물 관련 연구가 진행될 계획이다.

조선대 측은 또 센터의 교육과 훈련 기능에도 역점을 두고 방학 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해양실습 교육과정 개발, 해양수산 관련학과 학생들의 현지 실습 및 교육 한국수산벤처대학 활성화 및 고등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인력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대는 센터 사업을 위해 지난해 대학원 해양생물학과를 개설하고 올해에는 학부 과정에 해양생명과학과를 신설했으며, 해양생물 연구특성화기획단 및 연구단을 발족해 해양생물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학부모 찬조금으로 시설 확충 금지

광주시교육청 시행

광주시내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마련한 발전기금으로 시설 보수·확충이나 기자재 구입을 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개정·시행에 들어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르면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과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조성행위는 금지'된다. 나머지 학교 체육활동이나 복지,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또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해지고,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학교회계로의 이체를 할 수 없게 됐다. 발전기금 외의 기부금품은 학교회계 '기부금' 형식으로 접수된다.

지금까지 불법찬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학부모 대상 학교발전기금인 '자발적 갹출금품'의 경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위해서만 조성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에서 추진한 시스템(NEIS·행·재정통합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시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고체계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간소화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전남대 정외과 교수 공채 잡음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공채가 잡음을 내고 있다.

전남대는 지난 7월 실시된 정치외교학과 '지역 연구' 분야 교수 공채에서 한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 재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공채에서는 전공심화 지식, 외국어 능력, 도덕성 등 1차 심사 기준을 충족한 임용 후보자가 없어 합격자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탈락자 중 1명이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자 대학 측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다시 심사를 하고 있는 것.

또 지난해 1월 같은 학과에서 실시된 '정치과정' 분야 교수 공채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시 적격자를 뽑지 못한 당시 공채에서, 일부 교수들이 심사위원회 논의 내용과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육부 평가 우수사례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 유아교육과와 초등특수교육과가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전국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에서 최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53개 대학 96개 학과가 참가한 이번 평가에서 광주여대 유아교육과의 '유아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학과 연구소인 '어린이문화예술교육연구소'(소장 정대현·이하 연구소)가 개발한 '학제간 연계 프로그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어린이지식문화센터 지역기반 주체역량사업인 '교과활용프로그램' 및 '지역교육문화기초네트워크'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구소 측은 어린이 문화캠프, 금요체험학습, 도서관문화캠프,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캠프,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등을 꾸준히 기획·실시하고 있다.

초등특수교육과의 '예비교사 포트폴리오 작성 및 상담' 프로그램은 사범대학이 없는 현실을 감안해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모든 이력을 프로파일화 하는 등 학습 과정을 지속적으로 상담·점검받게 한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조선대 전호종 총장·동문들 로스쿨 기금 마련 팔 걷었다

3년간 108억 목표…일주일 만에 5억 모아

"5천여 의·치대 동문이 후배 한 명씩만 책임지면 문제없습니다."

전호종〈사진〉 조선대학교 총장을 필두로, 조선대와 동문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무엇보다 법학전문대학원 유치가 조선대의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많은 장학기금을 마련해 법학전문대학원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설된다면, 한 학기 등록금만 9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법조인의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도 두둑한 장학기금은 필수적이다. 등록금이 비교적 낮은 국립대학교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전 총장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게 생활하는 의과대학 동문 4천 명, 치과대학 동문 1천500명 등 5천500여 동문이 나선다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도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법률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학기금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전 총장은 연간 1천200만원씩 3년 동안 3천600만원(1구좌)을 기탁하기로 했다. 1구좌가 3천600만원인 것은 액수가 법학전문대학원 3년을 다닐 경우 필요한 학자금 규모로, 기탁자 1명이 학생 1명을 책임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전 총장이 발벗고 나서자 동문 및 기관, 교직원들의 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조선대 의대 13회 졸업생인 동아의료재단 한마음병원 하충식 원장이 7천200만원을, 광주은행이 1억800만원을 기탁했다. 민전산부인과 이민전 원장이 1억2천만원, 남도정보통신(주)이 3천600만원, 한국시멘트가 3천600만원, 국민은행 광주지점이 1천200만원 등 장학기금 마련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도 안돼 5억여원이 모였다.

장학기금은 매년 36억원씩 3년 동안 10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측은 재단 적립금 가운데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기금으로 사용키로 한 300억원에 이번 레이스를 통해 마련된 108억원을 보태 408억원을 만들 계획이다.

전 총장은 "법학전문대학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지역인재 유출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선대는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관련법 분야를 특성화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